

대륙배우자(大陸配偶)는 말한다: 대만내셔널리즘과 대륙배우자의 정치운동

문경연

이 연구는 2014~15년 일어난 두 사건들을 통해 대륙배우자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다룬다. 대륙배우자(大陸配偶)란 대만에 살고 있는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들을 일컫는다. 이들은 1987년 중국과 대만의 개방 이래 '결혼'이라는 통로로 대만으로 이주해 살아오고 있다. 이주의 역사가 긴 만큼 대륙배우자들은 대만 정부와의 끊임없는 투쟁과 타협 속에서 이미 대만가족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대만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는 집권 정당이 '중국'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 출신의 결혼이주자들과 다른 법적-제도적 시민권을 대륙배우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. 특히 2014~15년에 벌어진 해바라기 운동 등 '새로운 대만'을 확립하고자 하는 대만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오히려 대륙배우자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주었다. 대륙배우자들은 거리로 나가 '새로운 대만'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동시에 반(反) 해바라기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. 연구자는 이 대륙배우자의 시민권 평등 운동과 반 해바라기 운동의 사례를 통해서 이웃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의 정치 운동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. 특히 대륙배우자들이 이 두 사건/운동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이미지들을 어떻게 전유/전복시키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.

Date & Time: October 22 (Tues) 2019, 12:00-13:00

Place: Asia Square (3F), SNUAC (Bldg#101)